

대구주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4. 4. 27. (가해) 제1887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남산성당 남문 손잡이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19-31 참조)

토마스 사도는 “직접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는 구태여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마스 사도처럼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보지 않고도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은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변고가 일어나도 이 행복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1독서 사도 2,42-47

제2독서 1베드 1,3-9

복 음 요한 20,19-31

입 당 송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화 답 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손끝으로 느끼는 부활

김준우 마리오 신부 | 옥수본당 주임

그냥 만두, 칼국수보다는 ‘손’이라는 단어가 추가됨으로써 느껴지는 아련한 감정, 그것은 아마도 손끝으로만 쏘아 부을 수 있는 사랑과 정성의 맛이 배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토마스 사도는 오늘 그 손끝으로 직접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자 한다. 마치 자기 손으로 지켜드리지 못했던 주님께 대한 속죄의 마음을 담아서, 약속과 믿음과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토마스 사도의 손으로 만져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절규는 말이나 글로써 설명되는 부활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부활체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다. 손으로 만져서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부활 체험을 토마스 사도는 원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뵈었소.”라는 사도들의 말에 토마스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서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다. 원래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며, 그러하기에 강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영원히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다 바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은 ‘내가 아니라 ‘우리’이며,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마태27,25)라는 군중들의 말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비겁한 핑계의 말이다.

우리는 흔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올바른 구분이 아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일생에 단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믿음의 결정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둡거둡 제자 직분의 사명을 완성해나가는 것이다.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작은 위기에서 쉽게 쓰러지고 만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해본 사람만이 “하느님은 자비이십니다.”라고 나의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 **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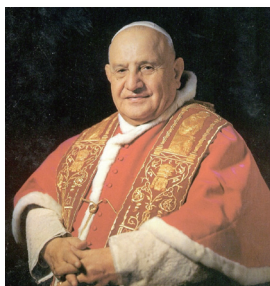


“주님,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교황님 시성 특집

복자 요한 23세 교황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성

5월 5일 성모당에서 시성 감사미사 봉헌



| 성 요한 23세 교황
(재위 1958~1963)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재위 1978~2005)



| 1984년 5월 5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모당 방문

복자 요한 23세 교황님(재위 1958~1963)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재위 1978~2005)이 오늘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동시에 시성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신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1962년 우리 교구를 대목구에서 대교구로 승격시키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84년 5월 우리나라에 오시어 103위 순교성인을 시성하셨는데, 5월 5일 대구에서 청소년대회를 주재하시고 23명의 부제를 사제로 서품하셨으며 성모당과 주교좌 계산성당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 후 1989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성체대회에 오셨습니다.

두 교황님이 함께 시성되는 것은 2천 년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위 중에 무려 104회에 걸쳐 126개국을 순례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작년에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에 의해 시복되었으며, 사상 최초로 『타임』지의 표지에 실릴 정도로 온 세상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요한 23세 교황님은 2000년 대희년에 시복되었습니다. 시성(諡聖)이란 순교자 혹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려 온 교회가 그의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경하도록 교황이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품에 오른 분의 이름은 미사경본이나 성무일도 기도문에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됩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의 축일은 당신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막하셨던 날, 10월 11일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축일은 교황 즉위일인 10월 22일입니다.

오는 5월 5일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모당을 찾아 기도하셨던 1984년 5월 5일로부터 딱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성모당에서는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가 주최하는 성모의 밤 행사와 함께 교황님의 시성 감사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대구대교구를 사랑하셨던 두 분 성인 교황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백문**



이민과 난민,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변화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점차로 늘어나는 인간 이동 현상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시대의 징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2006년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 참조).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관련된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 현상에도 창조의 아름다움과 죄의 신비 사이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연대와 환대, 우애와 이해의 몸짓들이 거절과 차별, 인신매매와 착취, 고통과 죽음과 나란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주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민과 난민은 인류라는 장기판 위에 놓인 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거나 강제로 쫓겨난 이들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정당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무색하게도 이들은 자주 불신과 배척과 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인간 존엄을 손상시키는 훨씬 더 심각한 비극과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력과 깊은 연대와 연민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협력하려면 국가들은 넘기 어려운 장벽을 세우지 말고 기꺼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국내 여건을 형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강조하여야 합니다. 지역 경제에서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면, 가족의 헤어짐을 막고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민과 강제 이주민,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심과 적대감을 종종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정체성과 문화가 사라지며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심지어 범죄도 증가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고정 관념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일부의 잘못을 고발하고 대다수의 정직과 공정과 선함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몫입니다.

이민과 난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배척의 문화'의 특징인 방어와 두려움, 무관심과 소외의 태도에서 벗어나, '만남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태도로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간 존엄을 이루는 바탕은 효율성과 생산성, 사회 계층, 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속이라는 기준에 있기보다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창세 1,26-27 참조), 더 나아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민과 난민에게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형제자매를 알아보아야 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민과 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더욱 안정된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 형제적 연대와 파스한 우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희망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데에 헌신하며 온 힘을 쏟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진심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2013년 8월 5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난 기적 같은 것 안 믿어!

당대의 대 의학자이자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렐 (1873~1944)이 혈관봉합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심장이나 주요 장기가 장애를 일으키면 그대로 끝,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렐 박사는 검증 가능한 사실 이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불가지론자(하느님이 계시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였습니다. 그런 카렐 박사가 1902년 리용에서 루르드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말기 결핵을 앓고 있는 마리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마리는 죽기 전에 루르드를 순례하려고 했지만 기차 안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되고, 카렐 박사는 그녀가 곧 죽을 것으로 판단하고 모르핀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나 루르드에서 들것에 실려 기적의 샘물에 몸을 적신 마리는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그 이튿날 일어나 다닐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그 과정을 카렐 박사는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이해할 수 없고 의학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현상을 목격한 카렐 박사는 무려 40년을 고민하다가 1942년에야 비로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된 마리는 수녀님이 되었고, 카렐 박사는 그 후 죽을 때까지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4월 27일	성 베드로 아르멘가우디오(수사, 1238~1304년), 성녀 지타(동정녀, 하녀, 1218~1272년) 성 안티모(주교, 순교자, 니코메디아, 303년)
4월 28일	성녀 발레리아(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 성 베드로 샤넬(신부, 선교사, 순교자, 1803~1841년) 성녀 테오도라(동정순교자, 304년), 성 비탈리스(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 성 크로난(수도원장, 로스크레아, 626년), 성 폴리오(독서자, 순교자, 판노니아, 304년)
4월 29일	성녀 아바(수녀원장, 디낭, 845년경), 성 후고(수도원장, 클뤼니, 1024~1109년) 성녀 가타리나(수녀, 교회학자, 신비가, 시에나, 1347~1380년) 성 티키코(바오로의 제자, 주교, 파포스, 1세기경), 성 로베르토(수도원장, 설립자, 몰렌, 1027~1111년)
4월 30일	성 마리아노(독서자, 순교자, 259년), 성 비오 5세(교황, 1504~1572년) 성녀 소피아(동정순교자, 페르모, 250년경), 성 아주토르(수도승, 1131년) 성 요셉 코톨렌고(신부, 설립자, 1786~1842년), 복녀 힐데가르데(왕비, 754~783년)
5월 1일	성녀 그라타(과부, 베르가모, 8세기), 성 마르쿨프(수도원장, 낭퇴이유, 558년) 성녀 베르타(수녀원장, 순교자, 아브네, 680년경), 성 아마토르(주교, 오세르, 418년) 성 시지스문도(왕, 순교자, 부르고뉴, 558년), 성 아사포(주교, 웨일즈, 600년경)
5월 2일	성녀 마팔다(공주, 수녀, 포르투갈, 1252년경), 성녀 조에(순교자, 팜필리아, 127~140년경) 성 아타나시오(주교, 과부, 교회학자, 알렉산드리아, 295~373년) 성 엑수페리오(순교자, 팜필리아, 127~140년경), 성 올탄(수도원장, 페론, 686년)
5월 3일	성녀 마우라(순교자, 298년경), 성 알렉산드르 1세(교황, 순교자, 113년경) 성 야고보(사도, 주교, 순교자, 예루살렘, 62년), 성 에벤시오(신부, 순교자, 113년경) 성 테오도로(신부, 순교자, 113년경), 성 필립보(사도, 순교자, 1세기경)

■ 2014년 성유축성미사 및 허연구(모이세) 신부 금경축



교회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성목요일인 4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계산주교좌성당에서 성유축성미사를 봉헌하셨다. 성유축성미사 중 허연구(모이세) 신부님의 사제 수품 50주년을 축하하는 금경축 행사가 진행되었다.

■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및 대축일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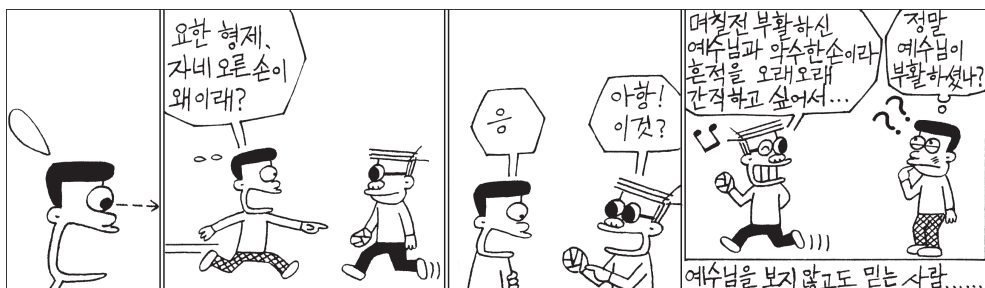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4월 19일(토) 저녁 10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부활성야미사를 봉헌하시고, 4월 20일(일) 오전 10시 충효성당에서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 사료(史料)를 수집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말 남산동 캠퍼스 내 '성 유스티노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여 모든 순례객들에게 볼거리와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신학교와 관련된 역사자료(사진, 기록물 등 모든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남산동 캠퍼스(대신학원) 053)660-5110~5112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⑥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5월 3일(토) 10:00 프란치스코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이주사후 후원회 월례미사	5월 3일(토) 11:00 대안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4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5월 3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5.4(일) 11:00
장소: 서울 성북동 본부
문의: 조대윤(야고보) 신부,
(010)3777-4688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5.2(금) 18:00~4(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5.3(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일치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아씨시수녀들과 함께하는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5.3(토)~4(일) 1박 2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2만 원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문의: 황안젤라 수녀, (010)5313-0241

예수회 성소식별 피정

기간: 5.16(금)~18(일)

장소: 예수회센터(서강대학교 옆)
대상: 예수회 성소에 관심이 있는 청년
다음카페: 예수회 성소실(vocsj)

예수회 젊은이 피정

기간: 5.30(금) 17:00~6.1(일) 17:00
장소: 성분도 은혜의 집(부산) / 9만 원
주제: 사랑을 찾아서
대상: 39세 이하의 미혼 남녀
문의: (02)3276-7706 / (010)8969-3107

한비아와 함께 걷는

제주 올레순례길(우도, 마라도) 피정
기간: 6.25(수)~28(토)
참가비: 29만 원(항공료 제외) 선착순
접수: 성이슬 피정의집, (064)796-4181

교육 | 모집

예수성심교육관 프로그램 안내

5.3(토)~4(일) 여성: 댄스음악테라피
5.24(토)~25(일) 모녀: 소통과 사랑
5.18(일) 청년: 해피엠 pm.2~5
문의: (010)9056-9005

제44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일시: 5.17(토) 14:00~15:00
장소: 남산성당
대상: 초·중·고·대학생·일반

주관: 마 신부님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생 마르크 합창단 초청 공연 및 남양성모성지 성모의 밤

일시: 5.17(토) 15:30 오프닝 공연 /
17:00 합창단 공연 / 19:30 성모의 밤
문의: 남양성모성지, (031)356-5880

교향청어린이전교회 꿈나무 여름 캠프

기간: 7.28(월)~30(수)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교육관
대상: 초3~6학년(선착순 140명)
참가비: 회원 5만 원 / 비회원 7만 원
문의: (02)2268-7103(pmsk@pmsk.net)

서울가톨릭청소년회 9회 IVY캠프

미국영어연수 및 IVY대학탐방
기간: 7.20(일)~8.14(목)
대상: 초3~고1 80명 / 7백만 원
문의: 구립서초유스센터,
(02)3486-0738

인천교구실버타운 <마리스텔라>

총 264세대 1,000명상
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280-1500
<http://www.marisstella.or.kr>

삼 성 화 학 건 설
옥상 우레탄 방수
주택수리 · 리모델링 · 칠
청구 **053)627-7204**
주택 **010-6347-0778**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 병리전문의 이동구 (마티아)
전 대구의료원 원장
범어네거리 4번 출구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혈체온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습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미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병 입: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053)260-7777 (내선)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옆(구.달성군청지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우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발칸 성지순례(7월 10일 출발)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9월 28일 출발)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세나투스 성모의 밤 및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감사미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성모당 방문 30주년을 맞아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가 주관하는
성모의 밤 행사와 더불어
교황님의 시성을 축하하고 감사
드리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시: 5.5(월) 20:00
장소: 성모당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교육 | 모집

22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5.8~6.5(매주 목) 5주간
시간: 9:30~14:30 / 회비: 10만 원
장소: 서재성당, 주관: 교구 가정담당
문의: 봉사자, (010)6499-3114

28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5.10~6.14(토, 5주간) 15:00~21:00
※ 6.7(토) 1주는 쉽니다.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5만 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자원봉사자를 모집 합니다.

문의: 이미선(보스코) 수녀, 615-4871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 476-6211

2014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접수기간: 5.5(월)~16(금)
문의: 850-3637(일반),
660-5512(특수), 850-3505(교육)

행사 | 모임

꽃동네 젊은이 성령축제 및 워크샵

성령축제: 5.3(토) 9:00~18:00
워크샵: 5.3(토) 18:00~5(월) 15:00
주강사: 임마누엘 신부(세계성령봉사회이사)
치유미사: 오웅진(사도요한) 신부
문의: (010)5490-5345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50주년 기념 행사

일시: 5.11(일) 10:00
장소: 서울 돈보스코센터 살레시오회
문의: 김인곤, (010)3819-7012

전레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4.28(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레꽃꽂이연구회

틴스타 성교육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6.14(토), 15(일), 21(토), 22(일)
9:00~17:00 / 총 4회
장소: 교구청 대화합실
대상: 청소년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010)9544-1838 / 250-3037

가톨릭근로자회관 5월 영아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5.1(목), 월 3만 원
낮반: 창세기, 마르코(화, 금 10:10)
저녁: 창세기, 사도행전(화, 목 19:10)
요셉의 믿음과 출세(금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장: 잠언

성요셉요양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장효원(요셉) 신부님 매일미사 봉헌
노인성질환 입원환우를 위한 이·미용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경범, 전정빈(프란치스코),
이재혁, 공대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토요진료 전면확대

5.10(토)부터 기존 시행해오고 있
던 토요진료를 전면적으로 확대
하여 실시하오니 신자분들의 많
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nterpack 식품포장기 전문 업체

반찬, 떡볶이, 찜, 탕, 국, 배달음식
냄새나는 음식, 자동 식품 포장기
친공 포장기, 비닐접착기, 식품용기, 식품비닐

전국대표전화 1544-9468
☎ 053)742-4488 이옥남(카타리나)
대일푸드팩시스템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3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알아 두면 참 편한
계산성당 연도실

-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서비스
- 운에서 발인까지 모든것
(정례절차 / 행정서류 / 성당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담안내 | 256-2046

24시간 상담가능 / 도우미·상담사 무료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교 IC방향 200m

미소나라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에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힐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롯데리아
두산 D/I점

단체주문

TBC방송국 두산오거리 들안길 방향 50m
☎ 053)767-0801
010-2547-1375
홍기호(베드로), 장선희(테레사)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불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